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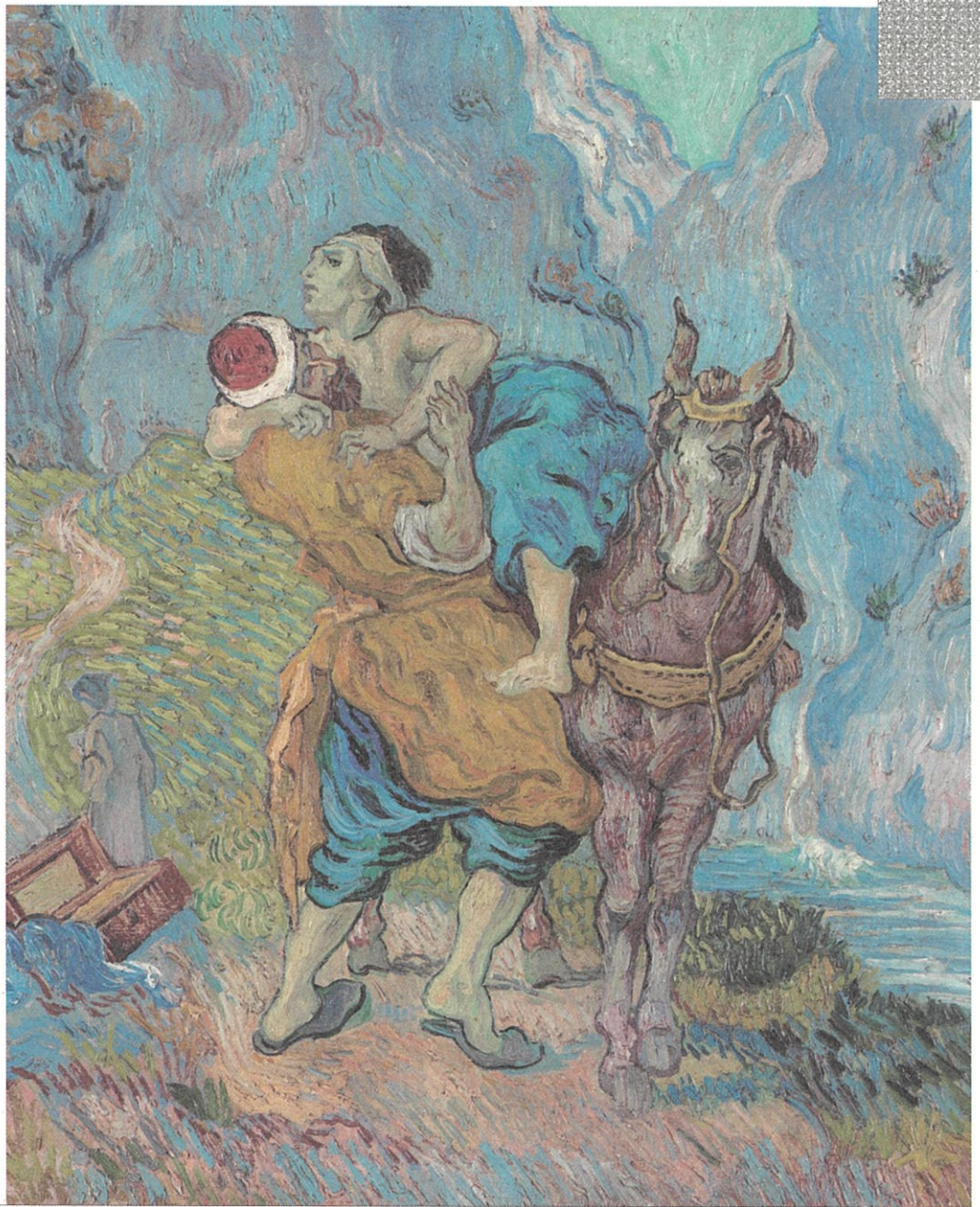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566호
2025년 7월 13일(다해)

연중 제15주일

착한 사마리아인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1853-1890)
1890, 캔버스에 유채 73x60cm
크릴러 밀러 미술관
네덜란드 오텔로



입당송 | 시편 17(16),15 참조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제1독서 | 신명 30,10-14

화답송 | 시편 69(68),14와 17.30-31.33-34.36 그리고 37(◎ 33 참조)

◎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

○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

○ 하느님은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신다. 그분 종들의 후손이 그 땅을 물려받아, 그분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 살리라. ◎

제2독서 | 콜로 1,15-20

복음환호송 | 요한 6,63.68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음 | 루카 10,25-37

영성체송 | 시편 84(83),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착한 목자를 닮은 착한 이웃



김영훈 베드로 신부 | 일원동성당 부주임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생명’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그 시작부터 우리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어지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물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희로애락이 담긴 현세의 삶은 영원한 생명이 정말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인지 발견하고 깨닫는 과정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스스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답으로 대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오늘의 복음 말씀은 누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세 사람 중 동족인 사제와 레위인은 반대쪽 길로 지나가 버렸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한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넘치도록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비유에 등장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당한 사람을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민족 간의 정서상 너무 먼 사이

였고, 상황을 외면한 채 자신의 길을 갔더라도 책임질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도와준 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고민하지도 않은 듯합니다. 그저 위험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을 뿐이고, 그는 주저 없이 행동으로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형제자매요 이웃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기 힘든 누군가의 삶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된 것이기에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의심도, 이해관계에 대한 계산도 없이 죽어 가는 사람을 돌본 착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웃 사랑의 좋은 모범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두고 경쟁해야 하고, 사람의 호의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착함’은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랑의 실천은 분명 착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착함은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함과 지혜로움을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착한 마음과 사랑의 행동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나와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이어질 겁니다. 살아 있음이 축복이라면 영원히 살아 있음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이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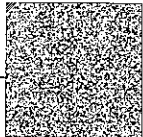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성화 해설

고흐는 텔라크루아의 ‘착한 사마리아인’을 고유한 색채와 붓놀림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희생을 상징하는 사마리아인의 원작 속 붉은 옷을 고흐는 노란색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고흐에게 행복과 희망을 상징하는 색이며, 이웃을 향한 봉사와 희생이 모두의 행복임을 의미합니다. 고흐의 얼굴이 사마리아인에게 투영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림을 그릴 당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음에도 타인을 돕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자비와 연대로써 서로에게 희망이 됩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과분한 행복의 이유



윤경호 바오로 | 배우

오랜 시간 연기를 했지만, 무명 생활이 길었습니다. 그만큼 생활을 유지하기가 팍팍했죠. 배우라는 직업이 일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는 일이라 고정 수입이라고 할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연기를 포기할 생각은 없고 생활은 해야 하니, 이것저것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언제든 배우로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달려가야 했으니, 고정적인 일이 아닌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의대생을 상대로 한 모의 환자, 텔레마케터, 공사장 일용직, 피어로, 무대 제작, 청과물 도매시장 야간 하역, 기업 연극, 전단지 알바 등등 어느 날, 가만히 세어보니 30가지도 넘는 일을 해봤더라고요. 그러다 약 10년 전쯤,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만났습니다.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 김신(공유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 드라마에서 저는 전생(前生)에 주인공 김신의 충실한 부하, 김우식 역할을 맡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현생(現生)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던 제가 생각지도 못한 회사에 취직하고 집과 차까지 선물 받습니다. 그 회사는 김신의 회사였고 저를 알아본 김신의 특급 대우였던 거죠. 당황한 저는 왜 이런 걸 저에게 주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신의 현생 비서(조우진 분)는 말합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하셔서요.”

감사하게도 이 작품 이후, 많은 분이 저를 배우로 알아봐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카페에 갔는데 케이크가 서비스로 나오더라고요. 저에게 왜 이런 서비스를 주냐고 물었더니 사장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하셔서요.” (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드라마 대사일 뿐, 당연히 저는 가톨릭 신자로서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힘들긴 했지만 제가 배우의 길을 걷는 데는 행운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배우의 꿈을 꾸게 된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초등부 주일학교 때,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면서부터였죠. 특별한 재주가 없어, 어찌다 하게 된 연극이었는데 준비 단계의 설렘, 무대 위의 긴장감, 친구들과 어른들의 기대에 찬 눈빛, 저를 향한 미소와 박수는 배우의 꿈을 꾸게 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배우의 길로 이끄신 거죠. 이후, 대학에서 훌륭한 스승님을 만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단역을 맡으면서 쌓은 인연들이 저를 배우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참 과분한 행복입니다. 저에게 왜 이런 기회를, 저에게 왜 이런 인연을 주시는 거냐고 묻는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잘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제가 나라를 구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저라서 “내 아들 바오로라서.”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조건 없이 무조건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사랑을 갚을 길은 없고 그저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 온라인 서울주보 #인터뷰
영상이 궁금하시면
큐알(QR)을 스캔해 주세요!

글구성 서희정 마리아작가

한컷 묵상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공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공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루카 6,45)

강신성 요한세례자 | 작가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의 것을 배운다



김영선 루시아 수녀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바닥 체험’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이 바닥은 우리가 경험하는 무력함의 정점을 가리킵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며,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다는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상황이기엔 벗어나는 것은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어 나를 향해 내뻗으신 하느님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어느새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 들었던 한 이스라엘 임금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람 임금과 잦은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 힘의 균형은 아람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때 북이스라엘에는 예언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군이 쳐내려올 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전갈을 보내어 위기를 모면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자 아람 임금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하였습니다. 식량 공급이 끊긴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린 나머지 인육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엘리사가 전쟁의 원인이라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를 미리 알고 대비하였기에 이마저도 실패한 임금은 엘리사에게 내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은 분명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더 바라야 한단 말이요?”(2열왕 6,33)

임금은 이 말로 깊은 절망감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력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무력감은 치명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임금은 눈과 귀가 열려 다른 가능성을 알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예언자는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켈, 보리 두 스아가 한 세켈 할 것이다.”(2열왕 7,1) 곧 내일이 되면 포위는 풀리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임금의 무관은 주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신다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있겠습니까?”(7,2) 그는 하느님마저 인간의 가능성 속에 묶어 두려 합니다. 자기 눈에 불가능한 일은 하느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해 질 녘에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넷이 아람 진영에 갔다가 그들의 진영이 비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람군은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용병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쳐들어 온다고 생각하고 허둥지둥 물러갔던 것입니다. 이들이 전한 소식을 한밤중에 들었던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이를 확인하고 나서야 예언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의 이야기는 고통과 절망이 희망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걸림돌이었던 고통은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최고의 것, 곧 희망을 얻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은 내 삶의 편의를 위해 생명을 마땅히 희생해야 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인격은 중요치 않습니다. 나는 여러 면에서 우월하고, 또 무엇보다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역시 나를 위해 희생하십시오.”

어떠신가요? 누구나 이러한 생각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사고를 합리화하거나 강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러한 문화를 “죽음의 문화”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문화”는 1995년,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회칙 〈생명의 복음〉을 통해 처음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 회칙에서 교황님은 낙태, 안락사, 혼인이 결여된 성행위 등 비윤리적인 사회 현상을 죽음의 문화라 일컫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생명 혹은 타인의 인격을 이용하거나 폐기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현대사회는 더욱 죽음의 문화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대중문화, 인간의 성 상품화, 쾌락을 위한 성관계에 관대한 문화, 죽음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사고, 아기의 생명보다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주장, 어떠한 형태든 사랑으로 인정하는 문화, 재물이 성공한 삶의 지표가 되는 사회가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 결과는 책임 없는 임신과 낙태, 가정 파괴, 자살, 마약, 무분별한 성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행위, 그로 인한 인격의 파괴, 가난한 이들의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낙태죄 폐지, 안락사와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고 비난받습니다.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때때로 계명을 잊은 채 죽음의 문화에 젖어들고 이를 합리화하며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자유는 그 자체로 고귀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참 의미를 갖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귀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뜻에 반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닌 ‘방종’입니다. 방종이란 책임 없는 권리 행사를 뜻합니다. 반면 자유란 책임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인내, 사랑이 담긴 행동이 진정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한하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빕니다. (...) 생명이신 하느님과 그분의 모상을 경시하고, 모든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기를 빕니다.”(2014년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강론)



'온 세상을 생명으로 물들여 갑니다!' - 나무 심기 프로젝트 시작!

2025년 4월 26일(수)



지난 4월 26일, 제1회 나무 심기 프로젝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상에 생명의 고귀함을 전하고자 하는 '온 세상에 생명의 숨을' 캠페인의 일환으로 준비했습니다. 상암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50여 명의 WYD 봉사자가 함께했으며, 2027년까지

총 2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의 첫 시작입니다. 이번 행사는 공동의 집을 돌보는 가톨릭 신앙인의 책임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향후 서울시와 산림청, 우리 교구 환경사목위원회의 협력 아래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곤니치와! 일본도 함께합니다! -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일본 순례 소식

2025년 4월 28일-5월 11일

4월 28일부터 5월 11일에 걸쳐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가 아시아 두 번째 목적지인 일본에 도착하여 순례 여정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순례단은 후쿠오카교구 옛 신학교에서 일본 교회가 준비한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환영식'에 함께했으며, 나가사키 관구에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를 전달했습니다.

환영식과 더불어 나가사키대교구장 나카무라 미치아키 대주교님의 주례로 기념 미사도 봉헌되었습니다. 대주교님은 강론을 통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며 기쁨을 느끼고, 이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십자가가 이토록 큰 것입니다."라고 하시며, WYD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순례단은 우리말로 '2027 서울 WYD를 한마음으로 기다리는 한국과 일

본 청년들을 위하여'라는 지향으로 기도했고, 일본 청년들과 함께 각자의 지향과 바람을 적은 큰 종이를 봉헌하였습니다.



WYD 봉사자 성모의 밤 - 성모님의 빛 아래, 하나 된 우리

2025년 5월 24일

WYD를 준비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지난 5월 24일(토) 저녁 명동대성당 영성센터 마당에 모여 성모의 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묵주기도와 말씀 묵상, 찬양과 나눔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총괄 코디네이터이신 이경상 주교님께서도 함께하셨습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을 나누고 봉사

자가 작성한 '2027 서울 WYD 봉사자 공동체를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를 봉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나눔을 통해 그동안 봉사를 하며 좋은 점도 많았지만, 힘든 점도 많았음을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를 통해 주님의 은총으로 큰 위로를

받았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힘낼 것을 다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많은 봉사자들은 오늘 행사처럼 2027 서울 WYD를 향한 여정이 함께 기도하고 신뢰를 나누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MZ가 아닙니다



도서 《요즘 애들》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서 기업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고졸 출신 신참 여직원들을 두고 직장 내 기성세대는 “너희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라는 식의 폭력적인

조언을 던집니다. 그 와중에 여직원들의 편이 되어주는 유일한 기성세대에 속한 봉현철 부장(김종수 분)은 후배들이 회사에 저항함으로써 발생한 책임을 오히려 본인이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이후 후배 직원 보람(박혜수 분)에게 편지로 자신의 속내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쉽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 옛날을 안 살아 본 사람들한테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지난 시간 시간이 소중했던 것처럼 지금 또한 누군가에게는 좋은 시절이었으면 좋겠어.”

앤 헬렌 피터슨의 《요즘 애들》은 저자 본인을 포함한 미국의 대다수 밀레니얼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섬세하게 비추으로써, 그들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의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특히 그들의 대입과 취업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어린 시절부터의 사회적 상황을 되짚어봄으로써 현재 밀레니얼 세대가 처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합니다.

자신을 희생해 가며 얻게 된 대학 학위조차 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와중에,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보다 2배 증가한 실업률과 고용 인원이 860만 명 감소한 현실 앞에 대다수가 절망할 수밖에 없

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데 급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임금이나 근무 환경, 근무 시간과 같은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과로를 유능함으로 포장하여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이러한 사회적 모순에 맞서 밀레니얼 세대가 적극적으로 저항해 나가길 촉구합니다. 사회적 불안정을 개인의 불안정으로 엮지 않고, 기성세대들이 구축해 놓은 세대론에 잠식당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시스템을 당연시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이 진단하는 미국 사회의 현실은 한국 사회와도 크게 다르지 않게 다가옵니다. 한국 청년들 역시 세대론에 파묻혀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이전 세대를 혐오하는 차원에 머물도록 사회 시스템이 그들을 길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 안에서 《요즘 애들》은 사회 전체가 엠제트(MZ) 세대라 칭하는 ‘요즘 애들’을 마주함에 있어 우리 사회의 태도가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의 봉 부장의 시선을 따르길 요청합니다. 엠제트 세대가 마주한 절망을 단순히 그들의 나약함이나 부족함의 결과로 치부하지 않고 이전 세대들의 부덕함이 낳은 결과로 여길 수 있는 사회적 성찰로 이끌 수 있는 그 시선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 신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마주하는 교회의 시선과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교회의 태도에도 《요즘 애들》이 요청하는 성찰과 쇄신의 과정이 절실히 보입니다.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국내수학

성 이나시오 학교 야학 학생 모집

1년 동안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함께 공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접수, 수업료 무료
대상: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성별·연령 무관)
때, 곳: (월~금) 19시~21시40분, 서강대학교 / 문의: 02) 717-8248 교무실, 010-8366-4609 이지영 학생과장
교무실: 서강대학교 곤자가플라자(마포구 백범로 35)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시스미나 시니어합창단원 모집(총성)

지휘: 이호중 교수 / 남성단원 환영
곳: 시스미나 음악원(신촌) / 문의: 010-9842-8818

서초동성당 헬름 체임버 모집 / 문의: 010-7743-2302

대상: 20~40대 남성합창 / 11월 레퀴엠 공연 예정
오디션(8월 마감) / 연습: 첫째·셋째주(주일) 19시

청년 자원봉사자 모집(성빈센트청소년회)

내용: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도교사
대상: 청소년들에게 관심있는 대학생, 청년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www.stvin.or.kr
문의: 02)926-3440, 010-6880-9605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 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7월 17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글라셋전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례 미사

때, 곳: 7월 21일(월) 11시, 글라셋전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월례 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해외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7월 28일(월) 14시 / 집전: 송영호 신부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기선 신부 기일 미사·월례 미사(오기선요셉장학회)

오기선 요셉 신부 35주기 추모 미사

7월 30일(수) 11시40분, 용인천주교묘지 김수환추기경 기념경당(031-334-0807) / 무료대절버스 증식 접수: 010-8982-9819 명동대성당 출발, 010-8936-2331 절두산 출발·010-5202-5145 대방동 9시40분 출발

월례 미사 7월 31일(목) 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7월 17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안내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강남 /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일원동성당 혼인미사 / 문의: 02)2226-2291

이름다운 청전과 카페,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웨딩환경, 전철 3호선 대청역 2분 거리, 300대 주차
때: (토) 12시 / 홈페이지: www.mylwon.com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회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명동 전진상 영성센터 전문심리상담

내용: 개인상담 정서불안·우울·분노·성격 등의 어려움, 부부 및 가족상담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의사소통·자녀문제로 인한 갈등, 스트레스 직장내 어려움·대인관계, 종합심리검사 진행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관계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	---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돕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7월 29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매체심리 상담전문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개별 상담	우울, 중독증상 및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시니어·아동·청소년·성인

직원모집

가톨릭교리신학원 사무직원 모집

원서접수: 7월 14일(월)~25일(금)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자기소개서
이메일(ccige@catholic.or.kr) 접수
문의: 02)747-8501(내선 4번)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모집 분야: 영업국 / 담당 업무: 영업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회사소개-채용정보 메뉴를 반드시 참조 /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서 접수

신대방동성당 사제관 주방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우편(우 07061,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11길 14 신대방동성당 사무실) 접수
서류 전형 후 개별 면접 / 문의: 02)825-2314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상시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나이제한 없음) / 이메일 문의
업무: 주방 근무(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 이메일(aoina@seoul.catholic.kr) 접수
본 전형은 접수 마감시한이 따로 없는 연내 상시 접수이며, 채용계획이 있을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전형 진행 / 합격자 발표: 서류 합격(면접일정 통보), 면접 합격은 대상자에 한해서만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직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전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010-8920-2111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7호선 건대입구역)	010-7197-1390 효주 수녀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7월 19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시(Zoom)	가톨릭회관 209호	010-9353-1773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주님의 기도로
피정하기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토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352쪽 | 2만2천원
문의: 02)945-2947, 010-2572-1365

이 책은 '주님의 기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 '기도 중의 기도'를 통해 피정하도록 이끌어 준다. 강의를 따라 피정하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담긴 풍요로움에 온전히 마음과 이성을 다해 참여하게 된다. 저자 파블로 신부는 세상을 떠나기 25일 전에 이 책에 담긴 내용으로 사제들을 위한 피정을 지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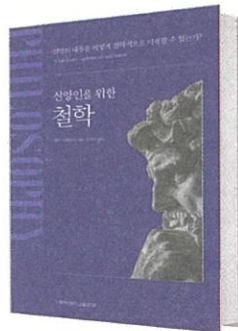


신간

빛을 찾아서

김성기 지음
기쁜소식 | 252쪽 | 2만3천원
문의: 02)762-1194

수품 20주년 맞아 개인의 성소와 수도생활을 자서전 형식으로 엮은 책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잘 나가던 사회인으로 살던 저자가 어떻게 사제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낮잠이 수도자이자 사제로 살기를 희망하던 시작부터, 뜻대로 되지 않았던 절망과 억울함의 시간들, 다시 불리어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변하던 시간들을,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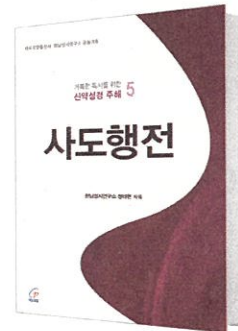


신간

신앙인을 위한 철학

피터 크리프트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376쪽 | 2만3천원
문의: 02)740-9718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철학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만 하는지를 다루기에 대부분의 전제를 철학적 이성으로 호소하여 제시하고, 철학의 각 분과에서 논란이 되는 개념들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이 책은 72개의 철학적 물음들을 제기하고 신학적인 내용과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되는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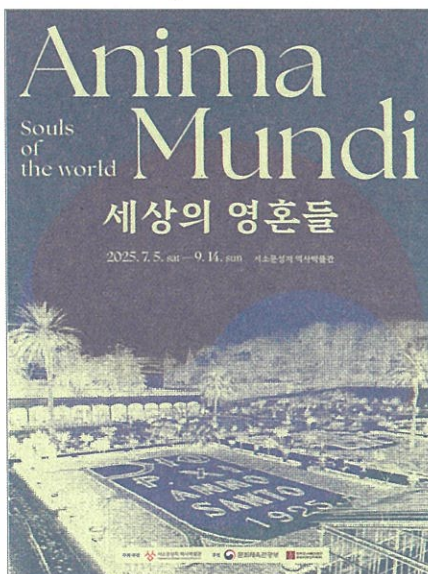


신간

거룩한 독서를 위한
신약성경 주해 5
사도행전

정태현 지음
바오로딸 | 488쪽 | 3만원
문의: 02)944-0944

사도행전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리고 종교의 중심인 팔레스티나에서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알려 준다. 이 주해서는 사도행전 전체 본문에 대한 신학적·영성적 주석을 겸비한 거룩한 독서 길잡이로 일상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도록 이끈다.



전시

Anima Mundi 세상의 영혼들

때, 곳: 7월 5일(토)~9월 14일(주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2 기획전시실
관람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주최·주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 무료 전시
문의: 02)3147-2407

특별기획전 'Anima Mundi(아니마문디, 세상의 영혼들)'는 바티칸 선교박람회 개최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다. 일제 식민치하에서도 독자적인 '조선관'을 기획하고 전국에서 출품할 물품을 모아 박람회에 참여했던 조선천주교회의 발자취를 통해, 바티칸 선교박람회가 표방했던 민족과 국가 간 공존과 조화의 가치를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다시 돌아보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 16개 박물관과 수도원, 그리고 바티칸 민족학 박물관과 협력을 통해 당시 출품 유물과 사진, 기록물 등 약 270여 점을 선보인다.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마포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유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스테파노)

연락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청진하십시오!”

● 성소후원회 미사

- 일시 : 7월 15일(화) 오전 10시
- ※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 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병자영성체

- 일시 : 7월 25일(금) 오전 10시 출발

● 남성 울뜨레아

- 일시 : 7월 20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 울뜨레아

- 일시 : 7월 22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반디 주일학교 여름캠프

- 일시 : 7월 19일(토) ~ 20일(주일)
- 장소 : 강화도래미마을
- 문의 : 교감 김재호 니카시오 (010-9429-7106)
- ※ 무더운 여름,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 ※ 봉사자 상시 모집합니다.
- ※ 7월 19일(토) 오후 3시 미사는 초·중·고등부 통합미사로 봉헌됩니다.
- ※ 7월 20일(주일) 오전 10시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청년 「이레밴드」 단원 모집

- 모집파트 : 드럼 및 연주자 전 파트 (상시모집)
-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3시
- 문의 : 필립보네리 단장 (010-8276-0512)

● 2025년 3분기 전신자 영적 독서

- 권장도서 : 1. 광야에 선 인간
2. 평화안에 머물러라
- 신청기간 : 6월 29일(주일) ~ 7월 13일(주일)
- 신청접수 : 사무실

● 상반기 단체 결산

교회 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단체별 결산과 예금 잔액을 대조할 예정입니다.
통장과 장부를 정리하여 **7월 27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절기 전기 및 가스냉방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교리실 사용 후 주변정리와 함께 에어컨 및 각종 전열/전등 기구 소등 바랍니다.
또한 단체회합 후 개별만남은 1층 로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7. 6)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04	720 (34.5%)	651 (32.5%)	42.9%	41.6%

교무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회회 감사헌금

故 유홍진 베드로 상가이십만원

● 감사헌금 (6월 30일 ~ 7월 6일)

박정수이십만원 곽선모오천원
이정금오만원 권태진이십만원
김경만이십만원 정예자일십만원
양경남일백만원 익명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14주일)

교 무 금 13,852,000원
주 일 헌 금 6,332,700원

입당	31	봉헌	218,213,211	성체	498,172,163	파견	41
----	----	----	-------------	----	-------------	----	----



가 난 한 이 돌아 하느님 을 찾 아 라 너 희 마 음 에 생 기 를 돌 우 어 라